

June 4, 2023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삶, 사역,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가복음의 이야기에서 우리의 선택, 인종, 민족, 연령, 성별, 직업, 결혼 여부 또는 능력배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천국이 여기에 있다는 메시지이고,

그리고 그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초대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는

목격자에게 회개할 기회, 경비할 정도, 희생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기회가 있었읍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시리즈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이야기는 문자 그대로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합니다. 누가복음 23장으로 넘어가고 시작하겠습니다.

32절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그의 사역의 연속으로 특징 짓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누가는 회개에 관심이 있으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보살핌과 관심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의 복음은 가장 아름답고 시적일 수 있습니다.

첫째 주에 보는 성경이 참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 텍스트를 비교하고 이야기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란히

복음서는 이 이야기에 대해 약간 다른 설명을 합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우리와 같이) 욕하더라.” 요한복음은 여기에 대해 아무말도 하지않음.

범죄자의 반응에 대해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대화를 제공 따라서 이 독특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점,

끝날 것 같던 그 순간까지 그의 마음은 고요했다를 알수있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더 배우기 위해 이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았습디다.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예수님께서 자비와 은혜와 공의로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최고의 상태의 예수님이 그분의 모습과 동일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는 희망입니다.

누가복음 **23:32-43 KLB**

32.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33.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34. [그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35.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 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36.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 **포도주**를 들이대면서,
37. 말하였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38.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
39. **예수**와 함께 달려 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40.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을 두렵지도 않으냐?"

41. 우리야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42.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43.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당신이 나와 같다면, 당신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의 정의를 생각할 것 입니다 .

그들은 어떻게 거기에 도착 했습니까?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을 몇 번이나 보았습니까? 피고인과 선고? 이번에는 관객이 아니라 중앙 무대입니다. 그들의 십자가에.

그들이 이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운명에 대한 충격적인 전시를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기 위해 로마의 지배에 저항한 로마인들은 피해자를 가능한 한 오랫동안 십자가에 산 채로 두었습니다. 그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이 볼 수 있고 공포에 질려 움직일 수 있는 가장 붐비는 도로를 선택했습니다.

로마인의 관점에서 십자가 처형의 공포는 사회적 수치의 공포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을 따라 공개적으로 위치하며, 웃도 없고, 매장도 거부당하고, 새와 짐승이 먹은 십자가에 못 박힌 희생자들은 사악한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께 도전했을 때, 제게는 절박하게 들렸습니다.

“네가 메시아가 아니냐? 당신과 우리를 구하십시오!”

옆에 두 사람이 언급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몇 구절 전에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거기에 두는 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요점은 우리가 둘 다로서 이야기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는 둘 중 하나가 아닙니다. 둘 다 필사적인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싸우는 우리 안에 캐릭터가 존재합니다. 복음은 화목하고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느냐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인 분열적인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예수님은 희생 제물을 바치십니다.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희생의 궁극적인 지점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합니다.

텍스트를 비교하는 것 외에도 우리는 누가의 복음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들이 쓰여졌을 때, 누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실제 목격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가의 글이 끝났을 때 살아 있었다. 이것은 그들이 누가의 이야기를 수정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에 대한 우리의 연구는 목격자 기록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내가 가장 먼저 물은 것은 "우리는 누구의 목격담을 보고 있는가?"였습니다. 나는 누가 자신이 목격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은 "예수의 십자가 곁에 그 모친이 섰으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확실히 마리아가 그랬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의 어머니이자 왕의 충실한 제자였던 마리아는 십자가 아래에서 있었읍니다.

이제 내 아들이 생겨서 나는 내 아이에 대한 헌신과 집착을 이해합니다.

나는 이 순간 십자가 아래에서 마리아가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몸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의 가슴과 배에 집중하여 그의 상승과 하강을 관찰합니다.

호흡. 궁금해요 - 아직 숨 쉬고 있나요?

마리아는 십자가 밑에 앉아 한 사람과 그릇이 죽는 기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는 앉아있다

십자가 밑에서 세상의 유일한 희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 그녀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그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슬픈 순간입니다. 이것은 마리아에게 엄청난 순간입니다.

그녀는 지금 여기 있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군중을 뚫고 예수님을 따라 언덕을 오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그녀는 밤에 그녀를 만난 주님의 천사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녀는 그 위에 쓰여진 명판을 보았습니다.

"유대인의 왕". 그녀는 아마 그분이 여인들을 치유하고 해산하던 때를 회상할 것입니다.

그녀는 죽어가는 나사로와 친구를 위해 우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분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다음이 무엇인지, 이번에는 인생이 어떻게 승리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로마인의 눈에 그의 죽음은 그가 황제에 대한 반대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저었다

백성을 미혹하고 나라를 음란케 하였으니 그것이 다라.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전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제 그들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 즉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이 있으려면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좋은 것은 죽습니다. 그의

죽음은 "모든 것이 죽는다"는 것을 아는 위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죽음 이야기, 즉 우리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때때로 그런 것들이 더 좋게 돌아오지만, 우리는 그 자체로 새롭고 놀라운 무언가로 인도됩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항상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은 반드시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십자가에서 자신을 찾는 데 집중한다면 어떨까요?

누가가 그의 이야기를 수집할 때 마리아에게 가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무엇을 했습니까?"

당신은 예수를 보고 그것이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어떻게 형성했습니까?"

많은 말로 그녀는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방법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모욕과 고통을 꺾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녀는 두 가지 중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춘 두려움에 사로잡힌 복음에 대해 간증하지 않습니다.

절망의 시기에 예수님이 평화와 희망을 주신다고 간증했습니다. 그가 그의 목에 매달렸다고 팔은 아름다움과 우아함으로 넓게 뻗었습니다.

천국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에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희망-당신이 십자가 위에 있든 발 앞에 있든. 당신의 생활 환경이 가져온 여부

당신은 절망의 장소로, 갇힌 느낌, 범죄자처럼 필사적입니다. 또는 마리아처럼 -

삶이 어떻게 승리할지 궁금해하고, 희망을 붙잡고, 당신이 잘 관리해 온 무언가를 붙잡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본 것처럼 당신도 예수님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했던 것처럼 그분을 경험하십시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있기로 선택한 마리아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여기에 자신의 온전한 모습을 담았습니다

순간-우리 자신을 십자가로 가져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것, 즉 희망과 꿈, 부서짐 및 우리가 부족한 방법,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그분의 용서, 그분의 삶, 그분의 최고를 받습니다.

우리 안의 그리고 우리를 통한 천국,,,십자가에 오시겠습니까? 오늘 가진 모든 것을 가져다가 내려놓으시겠습니까? 당신은 그렇게 할 때 생명을 충만하게 받을 것입니다.

우리 예배팀은 다시 돌아올 것이고 우리는 오늘 응답, 이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준비가 된 장로들이 주황색 끈을 들고 방 주위에 있습니다.

2- 두 가지 기도 스테이션 옵션이 있습니다.

3- 당신이 있는 곳에 머물면서 옆 사람과 함께 예배/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원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 회개의 기도

- 성령세례를 위한 기도

- 다른 것을 위한 기도

-

온라인 상태라면 이메일을 보내거나 다른 사람과 연결할 시간을 정하십시오.

시간을 마감하기 위해 몇 분 후에 다시 올게요.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이 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희망은 여러분이 오늘 믿음의 여정에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